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서울시민대학 '취업준비과정' 개최

이번 주부터... 1기 '창업과정세미나'는 9일(목) 수료식



영업직 취업준비과정 세미나 일정표▼

	1주(7월 16일)	2주(7월 23일)	3주(7월 30일)	4주(8월 6일)
09:30 ~ 10:40	입학식 학장	신규고객 개척기법(I) 김재술 소장	끝없는 도전 김경옥 사장	고객관리 방법(II) 김재술 소장
10:50 ~ 11:30	판매직의 비전 김재술 소장	경건의 시간 이종윤 목사	경건의 시간 이종윤 목사	경건의 시간 이종윤 목사
11:40 ~ 12:40	판매의 이해 김재술 소장	신규고객 개척기법(II) 김재술 소장	상당기법 및 판매화법 김재술 소장	거절 극복 요령 김재술 소장
13:30 ~ 14:40	점심식사			
14:50 ~ 16:00	프로 세일즈맨십 김재술 소장	성공사례 발표(II) 판매왕	DM을 통한 판촉기법	취업 유망업종 소개 김재술 소장
16:10 ~ 17:00	현대인의 스트레스관리 이운진 박사	성취인의 심리 이학주 교수	조춘택 실장	영업 성공의 길 김재술 소장
	영업의 기본자세 김재술 소장	판매의 준비 김재술 소장	고객관리 방법(I) 김재술 소장	수료식

지난 주 수료식을 가진 서울시민대학 1기 '창업과정세미나'에 이어 '영업직 취업준비과정세미나'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시민대학 2기과정은 판매직의 비전, 영업의 기본자세, 고객관리 방법 등을 다루게 된다. <오른쪽에 일정표>

1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2기과정도 수강료는 무료이며 교재와 식사가 제공된다. 접수는 사무국(☎ 517-7651~5)에서 받는다. 한편 지난 6월 18일(목)에 시작,

4주간 진행된 서울시민대학 1기 '창업과정세미나' 수료식이 9일(목) 3층예배실에서 거행됐다. 수료식에서 학장 이종윤 목사는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현재 우리나라와 가정과 개인에게 닥친 환난을 기도로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수료식을 가진 1기 서울시민대학은 총 159명이 등록했으며 총 30시간의 강의시간 중 24시간 이상 출석한 68명이 이번에

수료했다. 시민대학 1기과정에서는 개 과목이 다루어졌으며 11명의 강사가 참여했다.

교회학교 여름행사 시동

9-11일에 가진 대학부수련회를 필두로 교회학교와 각 부서의 여름행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교회학교들은 말씀과 기도, 연

령별 특성에 따른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인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익히게 된다.

이번 주에는 유치부와 사랑부

가 각각 교회당에서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한다.

또한 오늘 어린이찬양예배 시 유년·초등부어린이들이 다음 주 성경학교를 앞두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위한 초청장을 제작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새가족부 교사들은 16일(목) 오후 7시 교사수련회로 모여 교사들의 영적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98 상반기 새가족부 활동을 돌아보며 새가족들의 교회생활적응을 돕는 방안들도 강구할 예정이다.

◆ 교회학교 여름행사 일정 ◆

부서	강사	실시일	장소	주제
유치부	이종윤 목사, 신미숙 전도사	7월 17일(금) - 19일(주일)	교회당(유년부실)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마28:20)
유년부	이종윤 목사, 이상진 목사	7월 20일(월) ~ 21일(화)	교회당(유년부실)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마28:20)
초등부	이종윤 목사, 이성득 목사	7월 20일(월) ~ 21일(화)	교회당(초등부실)	끝날까지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고후5:17)
중등부	이종윤 목사, 민영수 목사, 김정현 목사	7월 20일(월) ~ 22일(수)	미금전교회(미금시)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고후5:17)
고등부	이종윤 목사, 김정현 목사	7월 20일(월) ~ 22일(수)	미금전교회(미금시)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고후5:17)
청년부	이종윤 목사, 김정현 목사	8월 3일(목) ~ 6일(토)	추광수양관(속초시)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고후5:17)
사랑부	이종윤 목사, 김성숙 전도사	7월 17일(금)	교회당	끝날까지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고후5:17)

이사야 강해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이사야 8장 16-18절

본문에서 앗시리아가 유다를 점령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앗시리아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유다는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예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두루마리에 기록을 하여 인봉을 하고 아무도 뜯어보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유다 백성은 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진저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유다 땅에 세워질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두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예표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1. 증거의 말씀이자 율법을 선포한 이사야

증거는 영어로 간증(testimony)이라는 뜻도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증거의 말씀, 곧 간증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하는 말은 증거의 말씀이므로 믿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것은 율법이므로 그 말씀을 듣고 행위를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만 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았다면 반드시 믿음과 행위가 나와야 합니다.

야곱의 집이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낮을 가리셨다고 했으니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기 싫어하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가슴이 아픈 이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멸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17절 하반절)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자기 백성을 버리고 주변 사람들이 멸시할지라도 그는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받은 말씀은 분명히 증거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요청되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받아도 율법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율법은 오히려 우리에게 울무가 될 뿐입니다. 17절을 읽으며 우리는 여기서 주어를 ‘나는’ 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은 메시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낮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사 8:16-18)



이종운 목사

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17절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 응답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메시아 예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 증거는 싸매고 율법은 봉함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싸매고 봉인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단 12:4) 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어린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마 11:25)라고 어린이들에게까지 나타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증거를 봉인하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실 약속이 조금이라도 잘못 기록되면 안되므로 바르게 간수하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는 아직도 감추어진 진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잘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선지자와 언약의 자손들에게 위임된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딤후 1:13-14).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래 교회에서 주일성수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장신대에서 이번 학기에 신약의 입장에서 보는 교회갱신에 관해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 한국 교회가 갱신되어야

할 문제 가운데 주일성수를 말하였습니다. 오늘 한국의 대표가 된다고 하는 교회들이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꼭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모든 일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말씀은 그의 자손들이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봉해두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전수되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목숨을 걸고서 지켜야 됩니다.

주일성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순교자들이 헛된 죽음을 죽은 것으로 만들면 안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신앙의 유산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삽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믿음과 행위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민대학 창업과정세미나를 수강하고

돈벌기 앞서 하나님을 중심에

장명수(일산 동안교회 성도)

저는 일산에 거주하면서 그동안 서울시민 대학을 수강했습니다. 이런 좋은 시간을 통해 새롭게 깨닫고 용기를 얻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웬지 그냥 수료하기에는 뭔가 아쉽고 또 너무 감사한 마음을 도저히 물어둘 수 없어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 달 동안 훌륭한 강사님들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모든 일을 그 섭리 속에서 계획하시고 친히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나는 이 세상 태어나 살면서 주님께 하듯 모든 일을 그렇게 두렵고 정성된 마음으로 했는가' 스스로 질문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

니다. 한 마디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지난 날의 제 삶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새벽기도에 갔다와서 방송을 통해 목사님의 말씀을 들곤 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화요일이 매주 기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너무 확실한 말씀에 저는 제 신앙의 위치를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메시지는 무언가 살아 있었으며 저를 향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서울교회 출석하는 친구가 늘 자기네 목사님이 최고라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힘과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 나라는 희망이 있고 또 저희들 같이 힘없는 사람들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시민대학의 강사님들 한분 한분 모두가 너무 열심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한 가지라도 더 알게 하시려 하는 그 모습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대학을 위해 봉사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의 천사같은 모습과 마음을 보고는 너무 감사하여 나도 주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하는 봉사자가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했습니다.

요즘은 정말 저희들 같은 서민들이 살기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기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든 삶의 목적을 돈을 버는 것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둘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이 힘들기는 하지만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몰라 하던 때에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아 깨닫게 해 주시며 용기를 주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순례길에서

어느 권사님과 '이불 속 사랑'

나현아(제 3교구)

20여년 간 교회에 몸담아 온 나의 신앙은 어머니에게 "나 오늘 교회 갔다왔어요"란 사실을 알리려 매주 주보나 챙겨오는 그런 수준이었다. 여섯 살 무렵 유치원에 갈 형편이 못됐던 나는 대신 동네에 있던 교회 유치부를 다니는 것으로 섭섭함을 달랬었는데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시절은 그때뿐이었던 것 같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교회가 굴레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대학 4학년 중반에 일찌감치 입사하게 된 장애인신문사 기자 생활 속에서 나는 너무나도 불평등한 사회의 단면을 속속들이 알게 됐다. 또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장애인들을 만나 취재하고 돌아오는 길이면 하나님의 존재가 더욱 어설픔게 느껴지곤 했다.

그러던 직장생활 2년여 만인 지난 6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허리통증이 내게 찾아왔다. 대학친구와 직장동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라는 충고를 시시때때 해주던 그 무렵이었다.

'언젠가는 매를 드실지도 모른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았던 내게 허리통증과 주위의 충고는 몹시도 도전이 됐다. 급

기야 회사에 일주일 병가를 내고 어머니가 권유하는 기도원을 찾기에 이르렀다.

친구 한 명과 함께 4인실 방에 들어가 짐을 풀고 있을 때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라며 연세 지긋한 룸메이트 두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그중 짐짓 어디선가 본 듯도 해보이는 백발의 한 할머니는 나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이시고는 집주소를 묻듯 자연스레 다니는 교회를 물으셨다. 내 입에서 '서울교회'란 말이 나오자 마자 할머니의 얼굴엔 반가움이 번져갔다. "이종운 목사님 계신데 거기?" 그때서야 알 수 있었다. 때때로 교회에서 낯은 성경책과 불편을 들고 부지런히 무엇인가 메모하시던 돋보기를 쓰신 백발의 권사님이 바로 이 분이시구나!

나는 낯선 곳에서 고향 친구를 만난 것처럼 권사님을 만난 것이 반가웠고 또 한편으론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이번 기회에 맘 편히 쉬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웬걸. 권사님은 "고저 엄마다 생각하고 편히들 지내라우"라는 말씀과 함께 무척 편안히 대해 주셨다.

하루 이를 지나면서 나는 예배시간마다 주

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모든 설교말씀이 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만큼 말로만 듣던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 더욱이 저녁예배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권사님이 이불 속에서 들려주시던 성경말씀과 찬송소리는 오랜만에 맞보는 평안함을 느끼게 했다.

"고만두긴 왜 고만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그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으셨다는 나의, 절없는 질문에 권사님은 대뜸 이렇게 대답하셨다. "성경을 매일 보라우. 고저 끝보다도 더 단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밤잠을 설쳐가면서 읽게 된다니끼나"

3일 금식 중 힘들 때면 권사님은 친할머니처럼 손을 꼭 붙들고 기도를 해 주셨고 처녀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이야기를 쉬지 않고 들려 주셨다.

나보다 하루 먼저 짐을 챙겨 서울로 올라가시는 권사님께 나는 아무 것도 드릴 것이 없었다. 너무나 많은 걸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셨는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조차 쑥스럽게 생각돼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권사님과 나 사이에는 몇마디 말보다도 더 진한 이불 속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지면을 통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 신앙에 불을 지피준 믿음의 선배 권사님. 하나님이 당신을 무척 사랑하신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저도 선배님의 그 믿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모음과 나눔의 장소

시민대학 나눔의 장

서울시민대학 창업과정세미나 수료자들을 위한 나눔의 장이 9일(목) 열렸다.

여전도회연합회가 매년 하반기에 주최하는



모음과 나눔의 장의 일환인 이날 바자는 전날인 8일(수) 1부 예배 후 성도들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물품들을 모아 1차로 이루어졌다.

“모음과 나눔의 장”은 이날 1차 나눔의 장에 이어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진다.

이번에 수집한 물품과 앞으로도 계속 접수될 재활용품은 이번주 시작되는 2기 시민대학 취업준비과정세미나와 여름성경학교, 8월 농촌전도, 9월에 있을 바자에서도 무상 공급 또는 판매될 예정이다

특별히 성경학교 기간 중에는 어린이들도



‘모음’과 ‘나눔’에 직접 참여한다. 이를 위해 주최측에서는 학용품, 도서, 운동기구, 아동의류, 악기, 컴퓨터 등 어린이들을 위한 물품 모음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에어컨, 가구, 컴퓨터 등 크거나 무거워 운반이 어려운 물품은 명세만 기록하여 필요한 성도와 나누도록 할 예정이다.

재활용품 접수는 매주 수요일 1부 예배 후 사무국에서 한다. 문의는 여전도회연합회.

순례자 컬럼

들을 수 있는 귀

운동장에서 비지땀을 흘리면서 경기하고 있는 축구 선수들의 모습을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보게 된다. 공을 차고 있는 선수에 못지 않게 아니문서와 더불어 경기를 해설하는 분의 안타까워 하는 음성을 듣다 보면 저런 분이 우리 나라에 열 한 분만 계시다면 월드컵은 우리 것이 되었을 게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물론 이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해설자들은 운동장에 내세워 보면 그들의 실측은 보지 않아도 뻔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고언을 무시하거나 자기도 못하는 주체에 무슨 말이 많으냐고 한다면 이 세상엔 아무런 발전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하는 이들을 비롯해서 각계 각층에서 남보다 앞서 달리고 계신 분들에게 여기저기서 해설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의 고언이 들릴 때마다 겸손히 들을 수 있는 귀와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 민족의 장래가 밝아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자.

'98 찬양대원 추가 임명

1998년도 찬양대원 89명이 추가로 임명되어 오늘 찬양예배시 임명식을 갖는다.

찬양대별 추가 임명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가브리엘찬양대: 허경미 김은경 박연경 김주연 주복순 최유현 김지원 이은아 이시내 최요셉 김요한 유동훈 성기언 김원웅

▶ 할렐루야찬양대: 정병화 한옥순 박소현 최인정 손현주 이미연 김구태 박성진 이인근 김송배 정재범

▶ 임미누엘찬양대: 김인숙 이현정 김영희 전광영 황정욱 최학인 이종혁

▶ 베들레헴찬양대: 김진달 박성현 서창원

오세용 유귀선 이기홍 이웅선 임광식 장인수 전기섭 조철기 홍정호 정세형 나희주 류중관 박성진 이종호 조부환 최홍렬 광동희 김광신 김송배 김태기 노문환 민순구 박철훈 서문석 신순우 오정수 윤봉준 윤찬오 이대원 이영서 이완형 정병무 최양진 최종시 탁경준 하영수 한중우 한충현 황정욱

▶ 호산나찬양대: 전영순 안정옥 전성옥 고정숙

▶ 시온찬양대: 김지은 조춘택 이미연 오순배 최종시 최학인 윤성남 김승민 이정수 김영식 조정식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정책개발위원회에 참여한다.

◇ 백수남·김영희 집사는 의왕시 오전동 동백아파트로 이사했다. ☎ 0343-29-4696

◇ 오늘 점심식사는 이완형 집사·박연순 권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섬세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서울시민대학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2. 교회학교의 여름행사를 위해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